민주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

김동철-신계륜-박기춘 3파전

김동철 비노·비주류 그룹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이후 비상 체제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경선은 김동철, 신계륜, 박기춘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4선의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 을)과 3선의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 을), 3선의 김동철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동철 의원은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비노(비노무현)·비주류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내 비주류인 '쇄신모임' 소속인 김 의원은 '버럭 동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원칙과 소신을 중요시하는 강직한 성격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패배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분들이 대리인을 내세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시키는 발상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친노 그룹 등 당내 주류에 직격탄을 날린 뒤, "원내대표가 된다면 변화와 쇄신, 수평적 리더십으로 하나 된 민주당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갑작스레 원내대표 출마에 나선 것은 당내 비노·비주류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손학규 전 대표 계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의원

신계륜 의원

박기춘 의원

특히, 호남지역 의원들의 지지까지 결집하면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내외의 분석이다. 호남지역 의원들이 각 계파로 나뉘어져 있지만 당내 친노 및 주류 그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대선 패배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계륜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으로, 범친노(친 노무현) 계로 분류된다.

그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역임했고, 당내 주류에 속해 있지만 계파를 초월해 초선 의원부터 원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친화력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다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이어 대표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원내 수석부대표를 2차례 역임, 원내 현안에 밝고 대여 협상력을 강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세 명의 후보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의 결선투표를 거쳐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편, 원내대표 경선 참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김한길, 박영선 의원 등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출마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전병헌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 추대를 제안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오른쪽)과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여야간사협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 예산' 반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루는 기재위는 증세 방법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6조' 대치로 예산심사 공전

예산안 처리 31일로 늦춰질 가능성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가 오는 31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처리의 마지노선은 31일까지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산된다면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이날까지 여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28일 처리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새로 선출되는 점도 31일 예산안 처리를 점치는 주요 근거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서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맞섰다.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국·과장급 인사

광주시는 27일 김상호 공무원교육원장을 문화관광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4급 이상 국·과장급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내년 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18면〉

최연주 여성청소년정책관은 복지건강국장으로 승진했으며, 문용운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생태국장에, 백봉기 종합건설본부장은 교통건설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또 김형수 서구부구청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임희진 공원녹지과장은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3급 승진자는 김효성 동구 부구청장, 박남주 도시계획과장, 임희진 공원녹지과장,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등 4명이다.

특히, 과장급에서는 세계 최초로 LED를 이용한 CDM 사업 및 그린에너지 사업 등과 관련해 국회 및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 국비 17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한 손경종 공업사무관을 발탁, 특별승진 임용했다. 광주시는 5급이하 승진·전보인사도 내년 1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1월 1일자로 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준국장급 등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인 지방 부이사관(3급)에선 여수 부시장에 이호경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에 이점관 F1대회운영본부장을, 해양수산국장에는 정병재 여수 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최종선 F1대회지원담당관을 승진시켜 F1대회운영본부장에 임명했다.

지방 서기관(4급)에선 윤승중 행정과장을 장흥 부군수에, 김연태 기업유치과장을 화순 부군수에, 배택휴 정책기획관을 해남 부군수에, 최성현 해양항만과장을 진도 부군수에 발령했다. 이밖에 정책기획관에는 행정안전부 출신인 정승준 서기관을, F1대회지원담당관에는 강효석 F1대회운영부장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관리부장에 최두주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전남도는 과장급 이하 후속인사도 조기에 마무리짓고 제18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실국장급 프로필

광주시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

검정고시 출신으로 7급 공채에 합격, 문광부에 근무하던 중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 광주에 진입했다. ▲담양(57)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무과장 ▲문화수도정책관 ▲동구 부구청장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일품.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원만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타월한 친화력과 정치력이 강점. ▲화순(57) ▲전남대 대학원 ▲여성발전센터소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외유내강형 리더십의 소유자. 환경직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55) ▲조선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폐기물관리과장 ▲환경정책과장

백봉기 교통건설국장

깔끔한 이미지에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 뛰어난 기획력, 추진력과 함께 매끄러운 일처리로 좋은 평가. ▲광주(53) ▲전남대 ▲건설도로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형수 경제산업국장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일의 전후를 꼼꼼히 따져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광주(56) ▲한국방통대 ▲과학기술과장 ▲광주비엔날레 사무처장 ▲투자고용국장

임희진 종합건설본부장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의 주역. 임업직으로써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업무추진력이 강점이다. ▲강진(57) ▲광주대 ▲공원녹지과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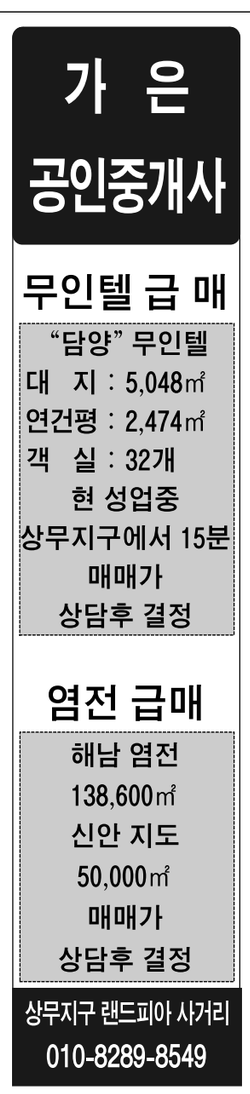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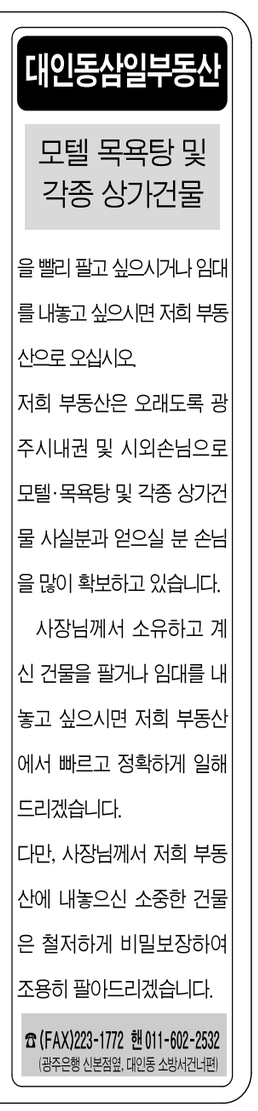
전남도

이점관 행정지원국장

꼼꼼한 일처리가 눈에 띈다. F1대회 운영본부장을 맡아 공무원 손으로 F1대회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성(58) ▲전남대 법학과 ▲목포 부시장 ▲F1대회조직위 운영본부장

정병재 해양수산국장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조직 관리에 무리가 없다는 평이다.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장점이다. ▲목포(56) ▲육사 35기 ▲전남도 비서실장 ▲경제과학국장 ▲여수 부시장

최종선 F1대회 운영본부장

젊은 고시출신의 대표 주자. 강한 카리스마로 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기업도시와 F1대회의 산파역할을 했다. ▲함평(47) ▲경희대 행정학과(행시 36회) ▲무안 부군수 ▲F1대회지원담당관